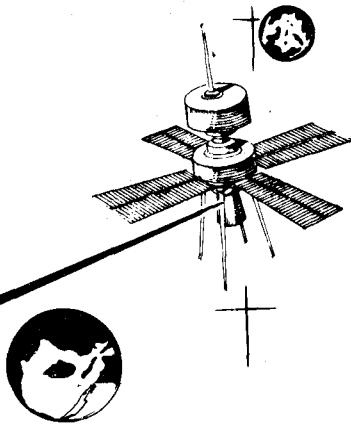


양계 안데나

南斗熙

본지 편집부장



알과 고기는 인류역사의 원동력

무엇이 좋다하면 한쪽으로 쏠리는 한국인 의식구조에 편승한 미국 위머대 자연요법 연구소 ‘이상구건강론’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섬유질이 많은 채소위주의 식생활 권장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등 축산물 소비가 줄고 싸전의 현미, 잡곡 등이 잘 팔리고 있다 한다. 주부들 장바구니의 다양성이 방송후 편중되게 나타나고 있다.

일시적인 유행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충격적이다. 영양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제시하는 우리 국민의 영양권장량에는 동물성 단백질과 유지류의 섭취가 부

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5대 영양소와 아미노산 균형이 잘 이루어진 식생활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서구인들과 다른 우리 국민의 체질에 비추어 우리나라 평균수준에서는 더 많은 동물성 단백질과 우유, 치즈, 계란 등을 섭취해야만 한다는 것이 대부분 영양학자의 견해로 이상구건강법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의 상식을 뒤엎는 편견으로 영양결핍의 위험성을 염려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전체로 보아 고기로 인한 피해계층이 적은데 비해 편협된 일방적 이론을 공영방송을 지향하는 영상매체로 10회에 걸친 특집으로 편성해 많은 시청자들의 상식을 당혹스럽게 만든 무책임성에 있다. 기존의 영양학자, 보건학자, 의사 등이 일시에 매도당한 이번 일에 대하여 방영한 방송사 측에서는 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도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 다수의 시청자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배려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찬반의 의견을 개진

할 토론의 기회를 만들어 정확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식문화의 재정립이 절실하다.

최소한 가정의 주부들만이라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상구론에 의한 비정상적인 체질의 소유자 보다도 수만배가 많은 일반 국민이 정상적인 양양적으로 균형있는 섭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를 맞추어 본회를 위시한 8개 축산단체에서 단체장들이 KBS 측을 방문하여 불합리성에 대해 항의문을 전달하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전전한 식생활문화의 창달을 위해 방송에 대한 책임을 엄중 항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공영방송을 표방하는 KBS도 궁정적으로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한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인 인력이 큰 자원이라 한다. 건전한 인력자원의 양산을 위한 동물성 단백질과 유지성분이 충분히 함유된 균형있는 식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더 많은 계란과 닭고기를 먹어야 한다.

60대 나이로 보이는 40대 이상구 건강 보다는듬직하고 여유있는 국민건강이 더 바람직하다. 창세기 이래 알과 고기는 완전식품으로 온 인류의 역사를 지탱하여온 원동력이 아니었던가.

■ 양계장 계분관리에 관심을

작년 6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미비로 대규모 양돈장 등 축산농가들이 각종 행정제재를 받고 있다.

환경청에 의하면 작년말까지 6개 환경지청과 시·

도가 합동으로 우사·돈사 등 축산업체 3백여곳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 50여곳을 적발하여 농장허가 취소, 이전명령, 개선명령조치, 경고처분, 특별관리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계속적인 단속을 펴고 있다.

문제가 된 농장들은 대부분 우사·돈사로 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계장도 예외는 아니겠으나 가축생리상 분과 뇌가 섞여서 배출되기 때문에 소·돼지와는 경우가 다르다 하겠다. 다만 악취나 오수 등에 의한 주변의 오염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계분처리장에 빗물이 스며들어 범람하여 주변 논과 밭에 오물이 침투해 주민의 진정에 의한 구속사건이 포천지역의 양계장에서 발생해 곤욕을 치루었던 일이 있었다. 결국 불구속으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으나 다른 양계장도 농장계분처리시설에 주의가 요망된다.

김포지역 양계장에서는 환경관련 매스컴 기자가 방문하여 계분처리 시설에 대해 겁도 주고 회유도 하고 해서 졸지에 광고비와 얼마의 비용을 주어 해결했던 사례도 있었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법에서는 허가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 지붕설치와 바닥·측면의 블럭시설, 악취제거를 위한 가스배출구 시설 등 까다로운 설치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개개 농장의 여건에 비추어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주변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양계장 계분창고 시설보완등 계분관리에 주의를唤기시키자.

양계인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양계업을 해 나가는 것이 소망으로 환경여건이 좋아져 농장의 종업원 구하기도 쉬워질 수 있을 것이다. **양계**